

2026학년도 인하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항 카드

[인문]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논술우수자)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인문사회계열	문항번호	■ 1번 ■ 2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통합사회, 한국지리, 경제, 사회·문화	
	핵심개념 및 용어	인공지능, 불평등, 자원희소성, 합리적 선택, 편견, 과학기술의 가치중립성, 정보 윤리, 과학기술의 발달과 삶의 변화, 기후변화	
예상 소요 시간	[문항 1] 70분, [문항 2] 50분 / 전체 120분		

2. 문항 및 자료

문제지와 동일

3. 출제 의도

본 논술고사는 제시된 논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과 주어진 제시문을 활용하여 논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지를, 그리고 자료에 근거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는 제시된 글 자료의 요지를 파악하고 주어진 조건을 고려하여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글을 구성하는 능력과 제시된 자료를 분석하여 논제를 논리적으로 정당화하거나 반론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또한, 답안 작성 시, 글 자료 해석과 데이터의 분석뿐 아니라 관련 현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의 응용력을 요구한다.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글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논술에서 요구되는 기본 활동이다.

논제는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 그 중 첫 번째는 수험자의 글 자료 해석 능력과 논리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제시문 (가)~(마)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의 판단이 인간의 판단보다 공정하다”라는 주장을 정당화하고 이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며, 제시문에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근거를 바탕으로 재반박하도록 구조화하였다. 글 자료는 인공지능의 판단이 인간의 판단보다 공정하다는 관점을 정당화하거나 반박하는 데 필요한 논거를 제공하는 다양한 지문으로 구성되었다. 판단이 공정하기 위한 조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타난 인간 판단의 취약성과 불확실성, 인간의 맥락적 판단 능력과 통합적 인지 능력의 우수성, 인공지능 기반 기후예보 모델의 정확성, 생성형 인공지능 언어 모델 알고리즘의 데이터에 대한 분류나 해석의 왜곡과 편향성 사례 등 관련된 제시문을 제공하여 제시된 주장을 지지하거나 반론하는 데 논거로 삼도록 하였다.

두 번째 논제는 주어진 자료를 활용·분석하여 “인공지능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라는 주장에 대해 정당화하고 반론을 제시하도록 구조화하였다. 이 논제를 위해 인공지능 학습기 활용이 학습 격차에 미친 영향, 인공지능이 예측한 위험도와 소득 계층별 만성 질환자 수의 차이, 상호작용형 인공지능 챗봇 활용이 지역 간 정보 격차 완화에 미친 영향, 상담원 숙련도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의 효과 차이, 로봇의 수와 지니계수 간 관계, 인공지능 챗봇의 편향성 등의 자료를 제시하여 정당화와 반론의 논거로 삼도록 하였다. 위의 논제와 제

시문은 『국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통합사회』, 『한국지리』, 『경제』, 『정치』, 『사회·문화』 등 교과서 내용에 준하여 제시되었으며,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모두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 국어 ■ 화법과 작문 ■ 독서 ■ 언어와 매체 □ 문학		
	■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 생활과 윤리 ■ 윤리와 사상		
	■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 통합사회 ■ 한국지리 □ 세계지리 □ 세계사 □ 동아시아사 ■ 경제 □ 정치와 법 ■ 사회·문화		
	□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 한국사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국어		
	성취기준 1	[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관련 공통
	성취기준 2	[10국03-02]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	공통
	성취기준 3	[10국03-04] 쓰기맥락을 고려하여 쓰기과정을 점검·조정하며 글을 고쳐 쓴다.	공통
	성취기준 4	[10국01-05] 의사소통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듣고 말한다.	(다)
	과목명: 화법과 작문		
	성취기준 1	[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공통
	성취기준 2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공통
	성취기준 3	[12화작03-05] 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을 쓴다.	공통
	성취기준 4	[12화작01-01]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 화법과 작문의 특성을 이해한다.	(다)
	성취기준 5	[12화작01-03] 화법과 작문 활동에서 맥락을 고려하는 일이 중요함을 이해한다.	(다)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기준 1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공통
성취기준 2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공통
성취기준 3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공통
성취기준 4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공통

과목명: 언어와 매체		관련
성취기준 1	[12언매02-05] 문장의 짜임에 대해 탐구하고 정확하면서도 상황에 맞는 문장을 사용한다.	공통

2. 교과명: 도덕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기준 1	[12생윤01-01]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학문으로서 다루는 윤리학의 성격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공통
성취기준 2	[12생윤04-01] 과학 기술 연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조사하여 비교·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과학 기술의 사회적 책임 문제에 적용하여 비판 또는 정당화할 수 있다.	(가), (라)
성취기준 3	[12생윤04-02] 정보기술과 매체의 발달에 따른 윤리적 문제들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정보윤리와 매체윤리의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다.	(가)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기준 1	[12윤사01-01] 인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고, 우리의 삶에서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이 필요한 이유를 탐구할 수 있다.	(가), (마)
성취기준 2	[12윤사03-05] 도덕적 판단과 행동에 관한 이성과 감정의 역할을 규명하고, 도덕적인 삶을 위한 양자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다)

3. 교과명: 사회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기준 1	[10통사09-02] 지구적 차원에서 사용 가능한 자원의 분포와 소비 실태를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인적 노력과 제도적 방안을 탐구한다.	(라), (마)
성취기준 2	[10통사09-03] 미래 지구촌의 모습을 다양한 측면에서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 삶의 방향을 설정한다.	(라), (마)
성취기준 3	[10통사05-01]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과 그 특징을 조사하고, 시장경제에서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그 한계를 파악한다.	(나)
성취기준 4	[10통사06-03]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의 사례를 조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천 방안을 탐색한다.	(마)

과목명: 한국지리		관련
성취기준 1	[12한지03-03] 자연재해 및 기후 변화의 현상과 원인, 결과를 조사하고, 인간과 자연환경 간의 지속가능한 관계에 대해 토론한다.	(라)
과목명: 경제		관련
성취기준 1	[12경제01-01] 사람들의 경제생활에서 희소성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합리적 선택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나)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기준 1	[12사문04-03]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을 조사하고 그와 관련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가)
성취기준 2	[12사문03-01]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설명하고 문화 다양성 존중 및 조화를 추구하는 태도를 가진다.	(마)

나) 자료 출처

1) 교과서 내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국어	신유식 외	미래엔	2018	116-133	공통	○
국어	이성영 외	천재교육	2018	205-233	공통	○
국어	박영민 외	비상교육	2018	164-207	공통	○
국어	신유식 외	미래엔	2018	160-173	(다)	○
국어	박영목 외	천재교육	2018	82-99	(다)	○
화법과 작문	민병곤 외	미래엔	2019	112-121	공통	○
화법과 작문	민병곤 외	미래엔	2019	162-173	공통	○
화법과 작문	박영목 외	천재교육	2019	130-151	공통	○
화법과 작문	박영목 외	천재교육	2019	152-179	공통	○
화법과 작문	박영민 외	비상	2019	10-15	(다)	○
화법과 작문	민병곤 외	미래엔	2019	76-85	(다)	○
독서	방민호 외	미래엔	2019	71-129	공통	○
독서	한철우 외	비상교육	2019	40-63	공통	○
언어와 매체	방민호 외	미래엔	2019	90-109	공통	○
언어와 매체	민현식 외	천재교육	2019	154-171	공통	○

생활과 윤리	김국현 외	비상교육	2018	132	(가)	○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미래엔	2018	91-92	(가)	○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천재교육	2018	37	(다)	○
생활과 윤리	김국현 외	비상교육	2018	29	(다)	○
생활과 윤리	김국현 외	비상교육	2018	118-122	(자료 1) ~ (자료 6)	○
윤리와 사상	류지한 외	비상교육	2019	132-134	(다)	○
윤리와 사상	변순용 외	천재교육	2019	132-134	(다)	○
윤리와 사상	류지한 외	비상교육	2019	10-14	(가), (마)	○
통합사회	정창우 외	미래엔	2018	276-279	(마) (자료 1) ~ (자료 6)	○
통합사회	박병기 외	비상교육	2018	281-283	(라), (마) (자료 1) ~ (자료 6)	○
통합사회	정창우 외	미래엔	2018	130-133	(나)	○
통합사회	박병기 외	비상교육	2018	132-133	(나)	○
한국지리	유성종 외	비상교육	2018	83	(라)	○
한국지리	신정엽 외	천재교육	2018	82-87	(라)	○
경제	김진영 외	미래엔	2019	15-18	(나)	○
경제	박형준 외	천재교육	2019	30-32	(나)	○
사회·문화	구정화 외	천재교육	2018	131-135	(가) (자료 1) ~ (자료 6)	○
사회·문화	신형민 외	비상교육	2018	127-131	(가) (자료 1) ~ (자료 6)	○
사회·문화	구정화 외	천재교육	2018	98-103	(마) (자료 1) ~ (자료 6)	○
사회·문화	신형민 외	비상교육	2018	90-99	(마) (자료 1) ~ (자료 6)	○

2) 교과서 외 자료 등을 활용한 경우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AI 시대, 우리의 질문	미리암 메켈, 레아 슈타이너커	한빛비즈	2025	273-278	(마)	○
AI 지도책	케이트 크로퍼드	소소의책	2022	157-179	자료 6	○

5. 문항 해설

본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쟁점이 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제시된 자료에 대한 분석 능력과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시문에 활용된 주요한 개념과 지식은 『국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통합사회』, 『한국지리』, 『경제』, 『사회·문화』 등 여러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수험생들에게 매우 익숙한 것을 취하였다. 문항은 제시된 글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과 데이터를 분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두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 1]은 제시문의 핵심 요지를 파악하여 주장에 대한 지지와 반론에 활용하고 제시문에 제시된 논거 이외의 새로운 논거를 제시하여 재반박하도록 함으로써 자료 해석 능력, 논리적 사고 능력과 서술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구성되었다.

제시문 (가)는 기존의 일관된 적용이 판단의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더불어 기존의 일관된 적용을 위해서는 판단에 있어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불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한다. 인공지능은 이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해관계의 배제에 관한 진술은 인공지능의 판단이 인간의 판단보다 더 공정할 수 있다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더하여 인공지능은 자신의 판단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책임 부과에 대한 진술은 인공지능의 판단이 더 공정할 수 있다는 주장을 약화한다.

제시문 (나)는 루이스 캐롤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년센스 재판 장면과 카너먼의 노이즈 이론을 들어 인간의 판단과 의사결정 과정에는 임의적 변동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같은 사례라 하더라도 판단자가 처한 상황과 상태에 따라 인간은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와 같은 인간 판단의 본질적 취약성은 판단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기에, 이 지문은 인공지능의 판단이 더 공정하다는 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제시문 (다)는 화용론과 철학적 근거를 통해 인간의 언어사용이 맥락적 상황에 대한 사고력을 높이고 세계를 해석하는 복합적인 활동임을 설명한다. 발화의 의미는 단어 해석 차원을 넘어 다양한 비언어적 특성과 복잡한 맥락적 판단을 통해 구현된다. 인간은 이와 같은 통합적 인지 능력을 통해 타인과 공감하여 긴밀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이 지문은 인간의 판단이 더 공정하다는 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제시문 (라)는 기존의 물리학 방정식을 사용한 수치예보 모델과 빅 데이터에 대한 처리와 학습력이 뛰어난 인공지능 기상예보 모델을 비교했다. 그럼으로써 인공지능 기상예보 모델이 기후 예측에서 정확성과 효율성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므로, 이 지문은 인공지능의 판단이 더 공정하다는 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제시문 (마)는 인공지능 언어모델 글로브의 편향성을 보이기 위해 사람들이 참여한 ‘암묵적 연관 검사’에서 드러난 편향성을 비교한 결과를 제시했다. 그럼으로써 인공지능이 인간의 역사적 또는 선택적 편견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학습함으로써 판단 오류의 가능성을 높이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기에, 이 지문은 인간의 판단이 더 공정하다는 논거로 사용될 수 있다.

[문항 2]는 주어진 자료를 활용·분석하여 “인공지능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라는 주장에 대해 정당화하고 반론을 제시하도록 구조화하였다.

(자료 1)의 <그림 1>과 <그림 2>에 따르면 인공지능 학습기 활용 후 학업성취도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수학 평균 점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점수가 더 많이 향상되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학습기 활용이 학습 격차와 자기효능감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료 2)에서는 의료비 중심으로 산정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저소득층의 실제 만성질환 수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소득층과 동일한 위험도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선제관리 프로그램 수혜자 선정 과정에서 저소득층을 상대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짐을 보여준다. 이처럼 편향성이 내재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은 소득 계층 간 의료 접근 격차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자료 3)에 따르면, 인공지능 챗봇의 활용은 참여자의 정책·쟁점 이해도, 정보 탐색의 양과 다양성, 투표 의

지를 증가시키는 데 반해, 정보 처리에 걸리는 시간은 효과적으로 줄임으로써 지역 간 정보 접근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인공지능 기반 공공정보의 제공은 정보접근성 강화를 통해 정치참여 의사를 향상함으로써 불평등 완화 주장의 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자료 4)은 생성형 인공지능 도입 후 저숙련 집단(Q1)은 생산성 향상 폭이 가장 크고, 고숙련 집단(Q5)은 변화가 미미하다는 점을 근거로, 인공지능 숙련도별 생산성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보상·평가 체계에 반영될 경우, 기존의 숙련도 차이에서 비롯된 임금 및 기회 격차가 완화될 수 있다. 이는 인공지능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한다는 주장의 논거를 뒷받침한다.

(자료 5)의 <그림 6>과 <그림 7>은 노동자 1만 명당 사용한 로봇의 수가 급격히 증가할수록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니계수의 변화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로봇 사용이 증가하는 현상과 소득 불평등의 증가 현상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 6)의 <그림 8>은 인공지능 챗봇 모델별 편향적 응답 비율이 시간이 지날수록 학습 데이터에 내재된 편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편향 강화는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알고리즘이 직종을 특정 성별과 연관 지어 광고 노출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현실에서 재생산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의 편향적 학습은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차별적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구직 기회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6. 채점 기준

[문항 1] 채점 기준

평가항목	채점 기준	배점
■ 제시문 (가)~(마)를 활용한 주장의 지지		
항목당 7점씩 부여 (21점)	(가) 인공지능은 인간과 달리 이해관계를 배제함으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음. (나) 인공지능과 달리 인간의 판단은 임의적 변동성으로 인해 본질적으로 취약함. (라) 인공지능은 인간과 달리 빅 데이터에 기반하여 판단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높음.	21점
■ 제시문 (가)~(마)를 활용한 주장에 대한 반론		
항목당 7점씩 부여 (21점)	(가) 인간에게는 책임을 부과할 수 있어 처벌과 제재의 대상이 되지만 인공지능은 그럴 수 없음. (다) 인간은 인공지능과 달리 공감에 기반하여 맥락적 판단을 하는 통합적 인지 능력이 있음. (마) 인간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도 인간의 편견을 수용하거나 학습함으로써 판단 오류 가능성이 있음.	21점
■ 반론에 대한 재반론		
새로운 논거의 경우 10점까지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지능은 일종의 확장된 집단지성이므로 특정 엘리트 중심의 판단보다 공정할 수 있음. 인공지능의 판단 과정이 로그기록으로 남아 의사결정 절차와 내용이 더욱 투명하게 공유될 수 있음. 인공지능은 누구나 활용할 수 있어 국가, 지역, 개인 간의 다양한 격차를 줄일 수 있음. <p>* 위 재반론 외에도 창의적인 재반론을 제시하면 10점까지 부여 가능</p>	10점
기존 내용의 재기술과 변형 5점 이하 부여	** 재반론에서 자신의 앞선 주장을 재기술했을 때 5점 이하 부여 예: 기술이 발전하면 인공지능은 인간이 생산한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고 학습할 수 있어 편향성을 줄일 수 있음.	
■ 글 전체의 논리성		
논리성	▪ 글 전체가 일관성을 유지하고,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고 설득력이 있음(0~8점)	8점
점수		60점

[문항 2] 채점 기준

평가항목	채점 기준		배점
자료당 6점씩 부여	정당화(18점)	반론(18점)	36점
	(자료 2)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저소득층의 질병 부담을 과소평가해 선제관리 대상에서 배제하므로 의료 접근 격차를 심화함.	(자료 1) 인공지능 활용이 학업성취도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간의 수학 평균 점수와 자기효능감의 격차를 완화함.	
	(자료 5) 로봇의 수가 증가할수록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니계수의 변화율도 높아 지므로 둘 간의 밀접한 관계를 나타냄.	(자료 3) 인공지능 기반 공공정보의 제공은 정보접근성 강화를 통해 정치참여 의사를 향상함.	
	(자료 6) 인공지능 챗봇 모델은 점점 편향적 응답 비율이 높아지며 이는 현실에서 성별 구직 기회 불평등으로 나타남.	(자료 4) 인공지능 도입은 숙련도별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이것이 보상·평가 체계에 반영되어 임금 격차가 완화됨.	
글의 논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 전체가 일관성을 유지하고,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고 설득력이 있음(0~4점) 		4점
점수			40점

감점 요소

<p>[형식 요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각 항목별 5점 이내 감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쓸데없는 서론 혹은 결론을 부연함 ■ 제시문에 나와 있는 문장을 원래의 완전한 문장 형태를 유지한 채 그대로 옮겨 적음 ■ 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등의 오류,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한 어휘나 문장 등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심각함 		<p>※ 1번 문항과 2번 문항 각각 (-)15점 이상 감점할 수 없음</p>									
<p>[분량] 기준 분량을 어긴 경우(미달 또는 초과) 아래의 표에 따라 점수 조정</p>		(-)10점까지									
1번	<table border="1"> <tr> <td>500자 미만 (결시 아닌 백지 포함)</td> <td>(답안 내용에 관계없이) 0점 부여</td> </tr> <tr> <td>500자 - 699자</td> <td>10점 감점(-)</td> </tr> <tr> <td>700자 - 899자</td> <td>5점 감점(-)</td> </tr> <tr> <td>900자 - 1,100자</td> <td>감점 없음</td> </tr> <tr> <td>1,100자 초과</td> <td>5점 감점(-)</td> </tr> </table>		500자 미만 (결시 아닌 백지 포함)	(답안 내용에 관계없이) 0점 부여	500자 - 699자	10점 감점(-)	700자 - 899자	5점 감점(-)	900자 - 1,100자	감점 없음	1,100자 초과
500자 미만 (결시 아닌 백지 포함)	(답안 내용에 관계없이) 0점 부여										
500자 - 699자	10점 감점(-)										
700자 - 899자	5점 감점(-)										
900자 - 1,100자	감점 없음										
1,100자 초과	5점 감점(-)										
2번	<table border="1"> <tr> <td>340자 미만 (결시 아닌 백지 포함)</td> <td>(답안 내용에 관계없이) 0점 부여</td> </tr> <tr> <td>340자 - 439자</td> <td>10점 감점(-)</td> </tr> <tr> <td>440자 - 539자</td> <td>5점 감점(-)</td> </tr> <tr> <td>540자 - 660자</td> <td>감점 없음</td> </tr> <tr> <td>660자 초과</td> <td>5점 감점(-)</td> </tr> </table>	340자 미만 (결시 아닌 백지 포함)	(답안 내용에 관계없이) 0점 부여	340자 - 439자	10점 감점(-)	440자 - 539자	5점 감점(-)	540자 - 660자	감점 없음	660자 초과	5점 감점(-)
340자 미만 (결시 아닌 백지 포함)	(답안 내용에 관계없이) 0점 부여										
340자 - 439자	10점 감점(-)										
440자 - 539자	5점 감점(-)										
540자 - 660자	감점 없음										
660자 초과	5점 감점(-)										

7. 예시 답안

[문항 1] 예시답안 (공백 포함 1,000자±100자)

인공지능의 판단은 인간의 판단보다 공정하다. 첫째, 제시문 (가)에서 강조하듯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는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데, 인공지능은 본질적으로 가치중립적인 기술이므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제시문 (나)에 따르면 인간의 판단은 임의적 변동성으로 인해 본질적으로 취약하다. 왜냐하면 같은 사례라고 하더라도 판단자가 처한 상황과 상태에 따라 인간은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의 판단에는 환경과 감정 등으로 인한 노이즈가 상대적으로 적어 더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셋째, 제시문 (라)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인공지능은 인간과 달리 빅 데이터에 기반하여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분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의 판단이 인간의 판단보다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첫째, 제시문 (가)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에게는 처벌과 제재를 통해 그 판단에 대해 책임을 부과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에는 그 판단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둘째, 제시문 (다)에서 강조되듯이 인간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맥락적 해석과 공감에 기반하여 판단하는 통합적인 인지 능력을 갖추었지만, 인공지능은 데이터의 해석 차원을 넘어 다양한 비언어적 특성과 복잡한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어렵다. 셋째, 제시문 (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인공지능도 인간의 선택적 편견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학습함으로써 판단의 오류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판단의 공정성에 있어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우수하다고 보아야 한다.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집단의 가치관을 고르게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빅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연산 능력이 탁월하므로 일반대중의 의견 제시와 선택에 훨씬 개방적이다. 인공지능은 일종의 확장된 집단지성이기 때문에 특정 엘리트 집단의 가치관에 기반한 편향적 판단보다는 다양한 집단의 의견이 반영된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공백 포함 1,000자)

[문항 2] 예시답안 (공백 포함 600자±60자)

인공지능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자료 2)에 따르면 의료비 중심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저소득층의 실제 건강위험도를 과소평가해, 선제관리 프로그램에서 이들을 상대적으로 배제해 소득 계층 간 의료 접근 격차를 심화시킨다. (자료 5)는 노동자 만 명당 로봇 수가 증가하는 A국이 그렇지 않은 B국에 비해 지니계수가 높아져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료 6)에 따르면 인공지능 챗봇 모델은 점점 편향적 응답 비율이 높아지며 이는 현실에서 성별 구직 기회 불평등으로 나타난다.

반면, (자료 1)에 따르면 인공지능 활용이 학업성취도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간의 수학 평균 점수와 자기효능감의 격차를 완화한다. 이는 학습 격차 및 교육 내 불평등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료 3)은 인공지능 기반 공공정보의 제공이 정보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간 정보격차를 줄이고 정치참여 의사를 향상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료 4)는 인공지능 도입 이후 고속열 대비 저속열 상담원의 생산성이 크게 늘고, 이러한 변화가 보상·평가 체계에 반영된 결과 숙련도 차이에 따른 노동자 간 임금 격차가 줄고 사회적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공백 포함 600자)